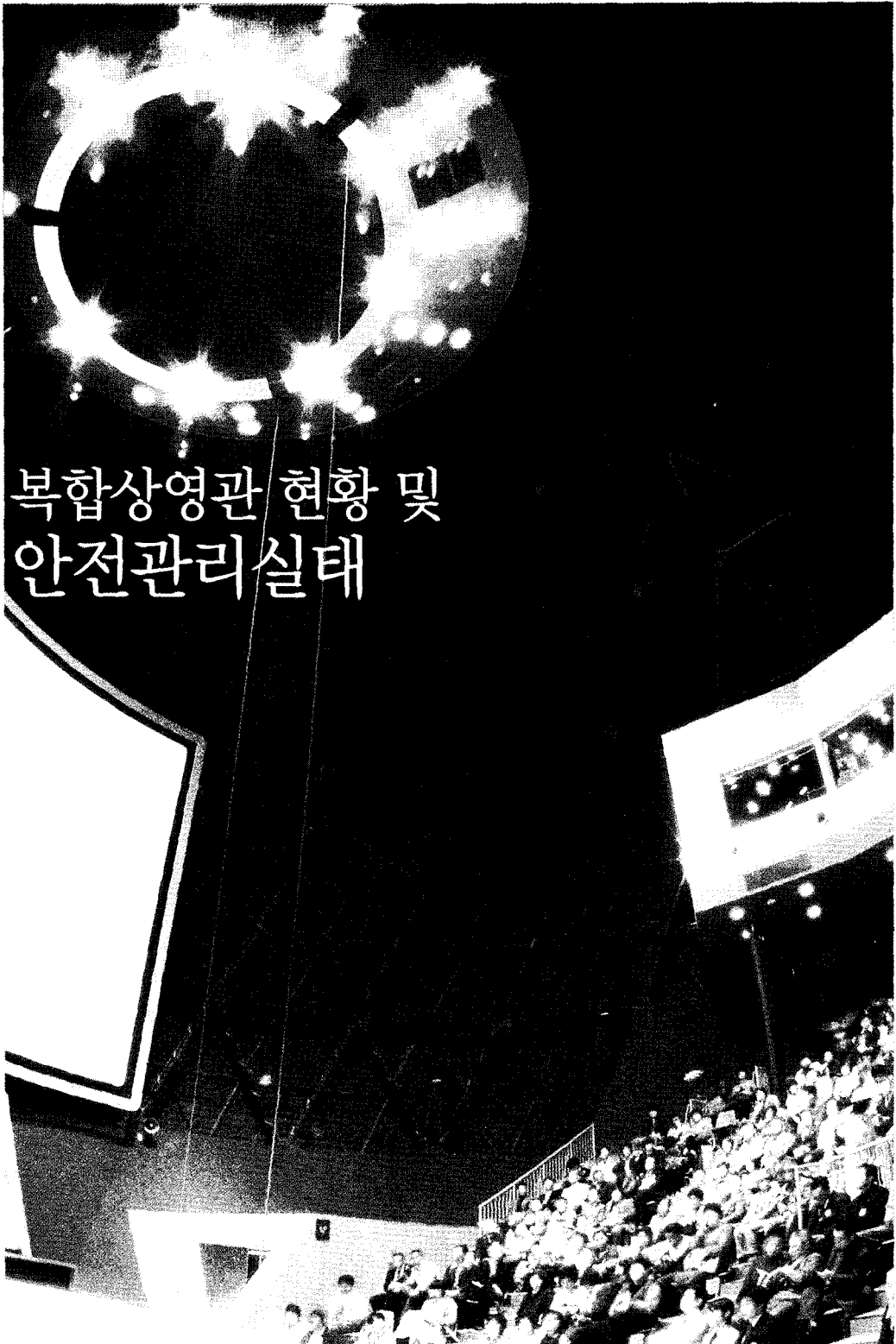


SPECIAL

THEME · · 01 · · 복합상영관의 안전관리실태와 대책



복합상영관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글 | 김충식
경기도 고양소방서장

1. 머리말

영화는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과 사랑을 주고, 그 영화를 보는 영화관은 사람들에게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제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단 한편의 영화로 1,000만이 넘는 관객을 유치하는 대박영화도 탄생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과 관심도 대단하다. 영화제작을 위해 수 백억원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영화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고 한다. 분명 영화는 예술이지만 이제 산업적인 요소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업종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멀티플렉스(Multiplex)라고 많이 불리는 복합상영관¹⁾이다. 복합상영관이 생긴 이후로 과거에는 개봉영화가 주요 대극장에서 상영된 이후에 지방으로 배급되던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제는 전국 동시 개봉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복합영화관은 관객을 유도할 수 있는 타 용도, 즉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계획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복합영상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별소방안전대책, 화재특별경계근무, 안전대책협의회, 특별소방점검, 국정감사 등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한해 평균 영화 관람객은 1억 5천만 명 정도로 하루 평균 40여만 명이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 어떤 다중이용업소보다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복합영상관에 내재되어 있는 화재 시 위험성은 피해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핵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예술의 전당 화재²⁾로 더욱 관심이 고조된 복합영상관의 현황과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화재위험성은 구조와 기능, 용도가 복잡될수록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즉 구조나 용도가 2배 복잡해지면 위험성이 4배는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영상관은 같은 면적규모의 일반 용도 건축물 공간에 비하여 최소한 8배 이상의 화재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복합상영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2. 전국 복합상영관 현황

가. 복합상영관의 구분

복합상영관은 발전단계나 공간구성 등에 따라

1) 복합상영관(Multiplex Cinema Theater)은 보통 복수(6개 이상)의 스크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DTS(Digital Theater System)와 3차원 첨단 상영 장비 등을 갖추고 부대시설로서 대형주차장, 식당, 카페, 소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춘 건축물로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비디오 등에 관객을 빼앗겼던 미국 극장들이 불황 타개책으로 개발하여 원스톱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복합화 된 시설을 의미한다. (허준호·윤명오, 2002)
2) 2002. 12. 12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대의 70% 정도가 소실되고, 간접손실을 포함하여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복합된 수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때 복합상영관의 매우 초보적인 단계는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형태는 매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과의 복합 단계로 오늘날과는 큰 차이가 있다. 2단계는 영화관람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편리성 증대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등과의 복합이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용도의 시설과의 복합뿐만 아니라 상영관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즉 판매시설, 위탁시설, 근린공공시설, 관광휴게시설, 운수시설 등과의 적극적 복합시도가 이루어지고 쇼핑몰 혹은 아케이드를 매개로 단지를 이루는 형태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공간구성 차원으로 보면 수직형, 수평형, 혼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직형 공간구성은 영화관 및 복합시설을 상하로 중첩되게 배치하는 것으로 도심이나 대지가 부족한 곳에 많이 등장한다. 수평형 공간구성은 영화관 및 복합시설을

수평(평면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동선처리를 위해 공용부분의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혼합형은 수직/수평형을 조합한 것으로 대규모 몰에서 적합한 형식이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나. 전국 복합영상관 현황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07년 1월 현재 전국에는 총 284개소 상영관중 백화점, 판매시설 등 복합 건축물 내 위치한 상영관이 243개소로서 전체 85.6%를 차지하여 단독 건축물 내에 위치한 상영관(41개소, 14.4%)보다 6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개소(23.9%), 경기 60개소(21.1%), 인천 15개소(5.3%)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50.5%를 차지하고 있다.

상영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5개관 이상 10개관 미만이 177개소로서 전체 62.3%로 가장 많았고, 10관 이상도 37개소로서 전체 13%를 차지하는

<표 1> 복합영상관의 공간배치 유형 구분

유형	특징
단일형	주로 다층형의 지상층에 해당되며, 1개 상영관이 1개 있는 경우로서 혼합하지 않고 입·퇴장의 영역이 구분된다.
병렬형	2개의 상영관이 1개 층에 있는 경우로, 단일형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공간에서의 대기(자)들로 복잡할 수 있다.
집중형	각 상영관이 입장 코어를 중심으로 배치되며, 메인 로비에서 대기 후 대표하면 상영관으로 간다. 좁은 면적에 많은 상영관을 둘 수 있으나, 입·퇴장시에 동선이 만나게 되면 혼합하고 위험할 수 있다.
분산형	고층상가의 중간에 상영관이 있는 경우로, 각 상영관이 큰 면적의 공간속에 떨어져 배치되며, 수직동선에서 상가 이용객과 영화관 이용객의 분리가 어렵고, 여러 관의 관람시간이 같으면 퇴장 시 러사상태가 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선형	큰 대기공간 하나에 여러 개의 상영관이 일렬로 배치된 경우로, 중앙 집중식 영사방식의 도입으로 나타난 유형이다. 동선이 한 방향이므로 명확하나, 퇴장동선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대기공간이 부족하여 혼합해질 수 있다.
혼합형	저층 영화관 건물의 1층부를 영화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상영관의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고, 대기공간이 분리되거나 또는 어느 부분은 두 개 이상의 상영관이 한 대기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자료 : 중앙소방학교 초급간부반 분임토의 자료(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것으로 나타났다. 층별 분포로는 5층 이상 10층 미만이 253개관으로서 전체 47.5%, 지하층과 11층 이상에 위치한 상영관도 74관으로 전체 13.9%를 차지하고 있다.

관람석 분포로는 1,000석 이상이 158개소로서 전체 55.6%로 나타나 대형영화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전관리 실태

가. 법령제도상의 미흡

복합영상관과 관련된 법적 안전기준은 영화관련법, 건축관련법, 소방관련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복합상영관의 위험특성과,

상영관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바닥면적과 관람석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최소의 피난시설 기준만 정함으로서 피난구, 기준통로 폭이 협소하고 피난계단 수 부족으로 유사시 많은 인원의 신속한 동시피난이 곤란하다. 그리고 재해대처계획 이행 소홀 등 계획서의 실효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관리자 지정·임무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편성과 운영이 형식적이고 종사자들이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숙지도가 낮아 다수인원이 대응하여야 하는 초기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재해대처 계획서 신고의무를 재해발생시 실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가 아닌 시·군·구청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요원의 배치기

〈표 2〉 전국 복합영상관 현황('07. 1월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84	68	18	9	15	14	8	3	60	5	8	6	21	13	13	17	6
복합	243	53	18	6	15	14	7	3	58	4	8	4	6	13	12	17	5
단독	41	15	0	3	0	0	1	0	2	1	0	2	15	0	1	0	1

〈표 3〉 상영관 수별 현황('07. 1월 현재)

구분	계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	7관	8관	9관	10관	11관	12관	13관	14관	15관	16관 이상	
계	복합	243	8	16	10	18	32	31	27	49	23	17	5	4	0	2	0	1
	단독	41	1	5	9	3	3	4	5	1	2	5	2	0	0	0	1	0

〈표 4〉 층별 상영관 현황('06. 12. 31. 현재)

지하층			5층 미만				5층 이상 ~ 10층 미만						고층
3층	2층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이상
8	19	23	21	40	65	80	63	51	47	36	34	22	24

* 여러 개의 층에 복합되어 상영관이 설치된 영화관(수직형으로 상영관 배치)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전체 영화관의 수치와는 다름.

〈표 5〉 수용인원(관람석)별 현황('07년 1월 현재)

구분	계	1500 미만	500 ~ 1,000	1,000 ~ 2,000	2,000 ~ 3,000	3,000 이상	
계	복합	243	37	67	115	20	4
	단독	41	7	15	12	6	1

준이 없고,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인력 배치로 유사시 이용객 대피 유도에 한계가 존재하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소방기관에서는 복합영상관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상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전단계부터 소방기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후적 안전관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 구조와 운영상의 부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복합영상관은 대형 건축물 내에 다양한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각종 부대시설이 연계 운영되는 One-Stop Entertainment를 추구하고 있어 화재하중이 높고 화재발생 우려가 높아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영관이 복합건축물의 고층 및 지하층에 위치하여 화재진압·구조 등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이용객들의 신속한 피난이 곤란하다. 또한 대부분의 상영관이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유리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정체로 인해 유사시 긴급차량 통로 확보 및 소방활동이 곤란하여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피난계단 등 피난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행위, 소방시설 전원장치 차단 등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특히, 심야 상영시간대에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폐쇄한다거나 옥내계단·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점포영업이 끝나면 보안상의 이유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의식의 부재도 심각한 실태다.

극소수의 상영관을 제외하고는 법적 의무 사항

인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상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작되어 실제 이용객들이 피난로 인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맺음말

화재안전측면에서 볼 때 보다 단순한 것이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복합영상관은 이름이 말해 주듯이 단순함과 거리가 멀다. 건축 구조, 용도, 이용자의 특성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결국 안전관리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다. 그만큼 안전대책의 수립이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화재는 1%의 발생가능성과 싸워야 한다.

복합영상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복합영상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복합영상관이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가 근본적인 안전 수준의 확보에 못미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제도나 시설이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㉞

[참고자료]

1. 소방방재청(2006), 복합영상관 안전대책,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2. 소은택(2004),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피난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3. 이병광 외(2002), 복합상영관 예방대책, 중앙소방학교 분임토의 과제
4. 허준호·윤명오(2002) '국내복합상영관 시설의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제16권 제2호